



설날 감사예배 (가정예배)



묵상기도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8-19상)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13절

(다같이)

뒷장에~

말씀

(인도자)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찬송 552장 (통358)

(다같이)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
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앓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찬송 526장 (통316)

(다같이)

- 1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 2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 3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 4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

(다같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설날

감사예배

(가정예배)



묵상기도

(인도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사야 43:18-19상)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3:1-13절

(다같이)

뒷장에~

찬송 552장 (통358)

(다같이)

- 1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2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 3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 4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맘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 후 렴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둔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말씀

(인도자)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찬송 526장 (통316)

(다같이)

- 1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기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 2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 3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 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 4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 수정 빛 같이 늘 맑도다
어린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잖네

기도

(다같이)

세상 만물의 시작이요 끝이신 하나님,
설날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올 한 해에도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차고 넘치는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과 동행하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는 귀한 명절 아침에 우리 가족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후에 맛있는 다과와 함께 감사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고린도전서 13:1-13절)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나 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날'입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게 되는 날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가치는 '같이', '함께'입니다.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음을 알려 주는 속담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도

잘 들여다보면 '같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열 번 짝어야 나무가 넘어가지, 여러 군대를 열 번 짝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족이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되어 집중하면 그 길을 가는 데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 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울리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집중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사만큼 부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안에 꽉꽉 채워 놓기만 했습니다.

은사가 많으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꽉꽉 채워 놓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사랑의 특성 1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하랴'는 것이 세 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울리는 팡과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세우는 가정

(고린도전서 13:1-13절)

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8.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9.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은 가족이 함께 모이는 '설날'입니다.

한 해의 출발점에서 '새로운 시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하게 되는 날입니다. 가족의 중요한 가치는 '같이', '함께'입니다.

노력하면 못 이룰 일이 없음을 알려 주는 속담 '열 번 짝어 안 넘어가는 나무없다'도

잘 들여다보면 '같이', '함께'가 중요합니다.

같은 곳을 열 번 짝어야 나무가 넘어가지, 여러 군데를 열 번 짝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족이 힘을 모으고 한마음이 되어 집중하면 그 길을 가는 데 능력이 생깁니다.

사실 하나 된 가정, 화목한 가정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목한 가정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이는 단순히 가정뿐만 아니라 사람이 어울리는

모든 곳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참 특별합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다양한 은사가 집중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사만큼 부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은사를 안에 짹짹 채워 놓기만 했습니다.

은사가 많으나 열매가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교회, 안에만 짹짹 채워 놓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사랑의 특성 11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보면

'하라는 것이 세 가지, '아니한다'는 것이 여덟 가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던 문제는 바로 이것을 뒤집어 놓은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은 안 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은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정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은 그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맙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허공에 흩어져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즐거운 설 명절입니다.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